

내시경적 치료방법에 따른 Dieulafoy 병변의 치료 효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최도원* · 김효정 · 김윤홍 · 정길만 · 김재선 · 변관수 · 박영태 · 이상홍

목적 Dieulafoy 병변은 작은 점막 결함을 동반한 노출된 점막하 동맥을 말하며 대량의 위장관 출혈을 일으키는 드문 질환이다. 과거에는 수술적 치료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내시경적 치료 방법이 일차적 치료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연자들은 내시경적 치료 방법에 따른 Dieulafoy 병변의 치료 효과에 관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대상은 1992년 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위장관 출혈로 본원에 내원하여 내시경적으로 Dieulafoy 병변으로 진단받은 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성별, 연령, 내시경적 시술의 종류, 재출혈의 빈도 등을 조사하였다. 성적 진단시 환자들의 중간 연령은 46.7세였고, 남녀비는 남자가 19명이었고 여자가 7명이었다.(남: 여= 1.89: 1) 2명의 환자는 2개의 Dieulafoy 병변을 갖고있어 총 병변 수는 28개이었다. 23개의 병변들(82%)은 일차적인 내시경적 지혈술(전기 응고법, 결찰 요법, hemoclipping, 혹은 에탄올 주입법)으로 치료되었고 5개의 병변들(18%)은 재출혈이 있었다. 5개의 병변들중, 4개는 이차적인 내시경적 지혈술로 치료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결국 위아진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각각의 내시경적 지혈술(전기 응고법, 결찰 요법, hemoclipping, 그리고 에탄올 주입법)의 치료 성공률은 92%, 83%, 100%, and 50% 이었다. 결론 Dieulafoy 병변의 출혈은 여러 가지 내시경적 지혈술로 성공적으로 치료되었다. 그중에서 전기 응고법, 결찰 요법, 그리고 hemoclipping이 에탄올 주입법보다 위장관 출혈에 상대적으로 높은 치료 성공률의 경향을 보였다.

— Sat-10 —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 소작법으로 치료한 위전정부 혈관확장증 1예

부산의대 내과 배용욱*, 정윤조, 김광하, 허정, 주형준, 정경식, 강대환, 조몽, 양응석

서론

위전정부 혈관확장증(gastric antral vascular ectasia, GAVE)은 만성 위장관 출혈의 중요한 원인 질환이며, water melon stomach으로도 불려진다. 저자들은 흑변을 주소로 내원한 70세 남자 환자에서 위내시경 및 조직 검사로 진단후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 소작법으로 치료한 GAVE 1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환자: 노○래, 남/72세

주소: 1달간의 흑색변

현병력: 한달전부터 시작된 간헐적인 흑색변으로 개인 병원 방문후 급성 출혈성 위염으로 의심되어 정밀 검사 및 치료 위해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이학적 소견: 내원당시 혈압은 110/70mmHg, 맥박은 84회/분, 체온은 36.5° C였다. 만성 병색 및 빈혈성 결막을 보였고 사지 및 피부에 혈관 확장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간 및 비장 종대도 관찰되지 않았다.

검사소견: 말초 혈액검사상 적혈구 $3.56 \times 10^6/\text{mm}^3$, 혈색소 7.5 g/dl, 헤마토크리트 23.8% m^3 , 망상적혈구 3.5%, iron 32 ug/dl, TIBC 302 ug/d l. ferritin 67.4 ug/L이었다. PT, aPTT는 모두 정상 범위였으며, HBV와 HCV marker는 음성이었다.

내시경 소견: 위전정부에 국한하여 수박의 씨와 같이 유문륜을 중심으로 심한 혈관 이형성 장애가 관찰되었다.

조직학적 소견: 위내시경하에 시행한 조직 검사상 위전정부 점막의 모세혈관 확장과 혈관내 혈전 및 고유판의 국소적 섬유화 소견을 보였다.

경과 및 치료: 아르곤 플라즈마소작법을 4차례 시행후 내시경적 호전을 보였으며 외래 추적 관찰중이다.